

# 완도군, 고품질 만감류 본격 출하...올해 35톤 생산

### 온난한 해양성 기후·풍부한 일조량·해풍 맞고 '새콤달콤' 시설 재배 면적 약 3.2ha...올해 예상 수확량은 약 35톤

완도군에서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해풍을 맞고 자라 상큼한 향과 달콤한 맛이 뛰어난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군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소득 작목으로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시설 재배 면적은 약 3.2ha, 올해 예상 수확량은 약 35톤이다.

제주도에서 재배되던 만감류가 이제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재배되고 있다.

특히 완도는 내륙 지역에서도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온화한 기후 등 시설 만감류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는 만감류 상품성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당도와 산도를 측정하고 있다.

당도는 13브릭스(brix) 이상, 산도는 1.1% 이하의 고품질의 과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만감류는 주로 농가 직거래와 지역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명절 전후로 수확과 판매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소장은 "만감류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



양한 시범 사업을 통해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보급에 최

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계약심사제도로 13억2,000만원 예산절감

진도군은 지난해 발주한 사업에 대해 계약 심사를 실시해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작년에 총 75건 519억7백만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와 설계변경 58건 11억4,800만원, 용역 17건 1억7,200만원 등 총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계약심사를 시행해 작년까지 총 135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시 ▲사업 발주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 여부 ▲시공방법의 적절성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검토·심사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계약 원가 심사를 통한 절감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예산 집행의 내실이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 강진군, 설 연휴 기간 비상 진료체계 가동

### 21일부터 24일까지...진료 공백 방지로 주민 불편 최소화

강진군은 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도 운영한다.

다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차별 운영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했다.

관내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강진의료원은 24시간 응급실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관내 의원 6개소와 약국 6개소가 각각 일차별로 진료 및

문 여는 약국으로 참여한다.

보건소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비상 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안내 및 운영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진료실은 9:00~18:00까지 진료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09:00~12:00까지 운영한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진료 및 운영 일정은 강진군 및 보건소 누리집, 복지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 포

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설 연휴 기간에 비상 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특히 연휴 기간 전후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므로 군민들께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군, 저탄소 인증 농산물로 가치소비 시대 선도한다

### 2022년 493ha 저탄소 인증, 지속확대 및 판로확보 총력



해남군이 전국 최고 농업군으로서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농업 확산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위상을 새롭게 하고 있다.

해 2022년에는 493ha면적의 저탄소 인증으로 전남도내 1위의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해남군은 2021년 관내 347ha에서 3개 품목이 인증을 받는데 이어 1대1 농가 컨설팅을 통

지난해 해남군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쌀을 포함해 참다래, 단감, 대추, 배추 등 9개 품목을

141농가에서 생산해 전년 대비 품목과 면적 모두 크게 늘어났다.

저탄소 농업이란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 방법 및 기술로서,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특히 '가치소비'가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해남군은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 기반 구축과 판로 확보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실시, 저탄소 농법을 활용한 벼 재배 기술 개발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사업은 계곡면 일원 126.4ha, 552필지 면적에서 80여개 농가가 참여해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 보급 등을 3년간 실시하고 있다.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계곡면에

이어 올해는 마산면 107.6ha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군은 기후변화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탄소 농업 관련 교육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농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위해 현장 지원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소비촉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기업체와 손잡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판매 전략은 젊은 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저탄소 인증 쌀 50톤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군은 올해 메타버스 등 플랫폼을 활용해 저탄소 농산물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해남의 특성을 담은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소비촉진으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에는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될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설립될 예정으로 이에 발맞춰 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을 신설하고 센터 설립 지원과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저탄소 농업 확산의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노인복지관 화재 대피 합동 소방훈련 실시

장흥군은 9일 장흥군노인복지관에서 종사자와 이용 어르신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대피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장흥소방서와 연계하여 추진한 이번 훈련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훈련에서는 어르신들께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전하고, 화재 시 행동요령, 초기대응법 등을 안내했다.

이어 심폐소생술에 관한 실습위주의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훈련에 참여한 어르신은 "겨울철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해 불안했는데 이번 훈련 덕분에 실제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다"며, "실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며, "평상 시에도 화재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